

신物野面北枝里 國民學校長 申萬淳先生에게 深深한 感謝의 뜻을 表하는 바이다.

註

① 博物館陳列品圖覽第八輯을 參照함: 이 石倉은 蠟石製로서 高 九·五cm 胴徑十一·七五cm 인데 外面에 十六行으로 全七四字의 陰刻銘이 있어 이 石塔의 建立年代를 알 수 있는바라 하겠다.

② 이 坐像은 現在 景福宮內 文化財管理局 中央「홀」에 移安되어 있다

瑞山 普願寺址의 調査

李 殷 昌

瑞山서 唐津으로 通하는 道路邊인 雲山面所在地에서 山路를 잡아들어 溪流를 따라 東南行하기를 約三키로쯤이면 寺址가 있는 龍賢里 入口에 나서게 된다. 左右에 峻拔한 山峰이 여울에 臨迫하여 깊은 溪谷을 이루고 병풍 같은 이 溪谷을 지나면 龍賢里盆地가 열리는데 곧 俗名 장당이 (講堂里)이다. 이 小盆地는 四面이 山岳으로 둘러싸이고 그 가운데로 清流하는 溪水가 北流하는데 溪流의 東便과 西便으로 約一萬餘坪一帶가 伽藍址로 되어 있다. 이 寺刹이 普願寺인 바 高麗初의 創建으로 法印國師에 依하여 繁盛大昌하던 大伽藍이다. 筆者는 이곳 普願寺址 伽藍모습과 또 金堂址附近에 散在된 石片等에 關心을 두고 調査한 바 이를 通한 考察을 이에 略述코자 한다.

寺址에는 伽藍遺構가 散在하고 있으나 攪亂이 極甚하여 元來의 伽藍 配置狀況을 알길이 없다. 多幸히 文獻이 있어 既往의 伽藍 모습을 짐작할 수 있으니 곧 光海君十一年(萬曆己未)에 吏曹正郎 韓汝賢의 撰한 湖山錄 佛宇條 普願寺伽藍記에

「講堂寺有二名 一曰 普願寺此則舊名 一曰 講堂寺此則新名, 寺前清川白石雪餘游泳, 法堂則二層高閣, 上出雲霧, 其上有白黑色鳩鴿百餘, 朝夕飛來飛去, 浮屠殿庭畔, 有古碑, 宋太祖朝所立, 其高三丈, 其字蠹蝕不可

讀, 羅漢殿短峽中, 有蒼檜一株, 何人所植, 老幹扶疎翠蓋亭亭, 往往雲雷生其上云云」

하였다. 이에 依하면 主殿인 二層法堂(金堂)과 이밖에 浮屠殿, 羅漢殿, 塔碑 등이 配置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現在 寺址와 關聯시키어 살펴보면 개울(溪流)을 가운데에 두고 東便 平坦한 곳에 幢竿支柱(寶物一〇三)가 있으니 이곳이 境內入口요 다시 西北쪽 溪流邊에 石槽(寶物一〇二)와 建物址가 있으니 이곳이 僧房이었을 것으로 推定된다. 이들 幢竿支柱와 石槽를 右便에 두고 西行하면 溪流에 이르러 架橋址로 推測되는 石築部分이 나오는데 이 다리(橋)를 通하여 中央伽藍에 들게 되었다. 다리를 건너 中門址(推定)를 거치면 正前에 五層石塔(寶物一〇四)이 서 있다. 五層石塔의 正後인 西쪽에 金堂址(遺墟)가 있다. 다시 金堂址後面인 西쪽으로 法印國師寶乘塔(寶物一〇五)과 同塔碑(寶物一〇六)이 있다. 또 金堂址左右處인 側面에도 建物址가 있으니 이는 「金堂」外 諸附屬伽藍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遺址 現況과 湖山錄의 伽藍記에 보이는 二層高閣法堂·浮屠殿·古碑·羅漢殿等과 거의 一致함을 알 수 있다. 却說 普願寺 金堂은 湖山錄에 보이는 二層高閣法堂인 바 現今은 金堂으로 認定되는 遺址가 五層石塔 正後인 西쪽에 있을 뿐인데 이 金堂址와 五層石塔은 東西一直線上에 配置되어 있어 이른바 東向伽藍①의 例를 보이고 있어 注目된다.

金堂址는 五層石塔에서 約二十三m 西에 位置한 바 地形關係로 正確한 測量을 할 수 없으나 大略 가로 (橫)十八m 세로 (縱)十六m 程度의 高臺基壇이 認定되는 바 모두 攪亂이 甚하여 原形을 분간하기 어렵다. 다만 金堂址와 五層石塔等 附近에 石階隅石片·基壇石片·礎石·佛座臺址臺石·佛座臺仰蓮石 등이 殘存하고 있어서 이를 通하여 옛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1, 石階隅石……五層石塔附近에 石階隅石 一個가 다른 石造物殘片과 같이 殘存하고 있다. 隅石은 一個石으로 되었는 바 地臺石·童子柱·欄干이 彫刻으로 表示되었다. 곧 隅石 下部가 側面으로 突起하고 그上面에 直角과 菱角으로 流麗하게 層節을 刻出하여 地臺石의 形式을 取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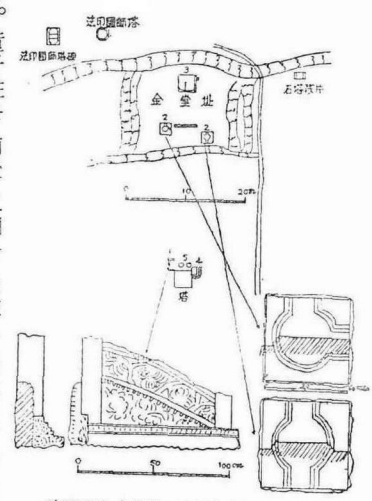
었다. 童子柱는 前後二個가 角柱로 表示되었는 바 뒷것은 높고 앞의 것은 낮은데 모두 上部가 破缺되어 童子柱 頭部의 形態와 彫刻有無가 궁금하다. 欄干石은 上下二重欄干이 아름다운 弧線을 그리고 있는 데 下欄에는 總十八個로 된 鋸齒紋으로 修飾되었다. 그리고 上·下의 欄干 사이의 上段과 下段은 共히 寶相華唐草紋이 彫刻되었다.

隅石의 形態는 聖住寺金堂址 ② 石階의 四等分圓形隅石의 意匠인데 이곳 普願寺의 境遇가 甚히 修飾이 華麗하여 注目된다.

이 隅石은 金堂石階의 것으로 推定되는 바 隅石의 後端에는 基壇地臺石에 들어 맞추는 凹部가 穿設되고 또 基壇面石에 들어 맞추는 凸部가 突出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元來의 金堂基壇은 이 隅石에 準하여 훌륭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 또 隅石의 後部 童子柱의 高가 六十八cm인 즉 金堂基壇이 적어도 七十cm 以上의 高臺基壇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礎石……金堂址에는 礎石 數個가 殘存하고 있.니 ① 二重圓形柱座가 造出된 것, ② 二重圓形柱座와 兩狹石 造出이 있는 것, ③ 二重圓形柱座와 ㄷ字形狹石 造出이 있는 것 등을 收拾하였다. ①은 下枋이 없는 기둥(柱)의 礎石이요 ②는 下枋이 있는 中間柱의 礎石이요 ③은 下枋이 ㄷ字形으로 交叉되는 隅柱의 礎石인 즉 이것으로 普願寺金堂의 壯麗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佛座臺片……金堂址 正後中央에 가로(橫) 一八三cm 세로(縱) 一七〇cm 地上高二一〇cm의 加工된 四角盤石이 殘存하는데 이는 佛座臺를



普願寺址 金堂址 및 石造物殘石
1. 石階隅石 2. 礎石 3. 佛座臺地臺石
4. 佛座臺仰蓮石 5. 石燈殘片

普願寺址 金堂址 및 石造物殘石
1. 石階隅石 2. 礎石 3. 佛座臺地臺石 4. 佛座臺仰蓮石 5. 石燈殘片



兩手を 모아 智拳印을 하였으니 이는 毘盧舍那佛座像으로 推定된다. 그리고 背面은 衣紋의 殘刀가 若干 미쳤을 뿐 아무런 彫刻이 없 이 매진한 面에 光背를 뜻기 爲한 圓孔이 뚫렸으니 元來 座臺와 光背가 具存

4. 石造佛座像(其一)(사진) (總高九一cm 膝幅五二cm) 金堂址 後側에 現存하는 花崗石造의 石佛座像인 바 素髮로 肉髻는 넓고 낮으며 兩耳는 길고 耳朶는 兩肩部까지 드리웠다. 顔容은 長橢形으로 둥근데 兩眉는 半月形으로 曲線을 그리고 眉間에는 白毫相이 있었던 痕跡인 小圓孔이 있으며 兩眼은 半開모습으로 弧線을 보이며 鼻梁은 破缺로 分明치 못하며 口唇은 작고 곧게 담으렸으니 大體로 溫柔한 豐滿相이다. 通肩衣에 衣紋은 縱橫으로 어울려 流暢한 線條를 보이고 있는데 特히 兩膝部에 이르러서는 橢圓線條로 接점이 重刻되었다. 結跏趺座에 胸前에서

받는 地臺石이다. 그리고 또 佛座臺의 破片으로 推定되는 仰蓮上臺石이 있으나 이는 「四角層級받침」이 造出되고 돌레로 寶相華 仰蓮을 彫刻하였다. 이 二個의 殘存石片을 通하여 推測컨대 須彌座式蓮花座臺로 推定되며 이 座臺에도 既往에는 거룩한 丈六像이 安置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瑞山郡誌 古物條에 依하면 「講堂寺佛像 在雲山面龍賢里 普願寺址, 鐵座佛像, 高七尺, 座石高一尺, 而兩手皆缺失 云云」하였는데 이 鐵佛을 目擊하였다는 이곳 部落父老의 말로 前記 內容과 같다. 그리고 郡誌에 보이는 「座石」은 곧 金堂內의 須彌座式蓮花座臺로 생각되는데 「高一尺」이라 하였음은 廢寺後에 座臺下部가 埋沒된 地上高가 一尺일 것이다.

하던 것으로 그彫刻樣式은 麗代로 推定된다.

5, 石造佛座像(其二) (現存高二五cm 現存膝幅一七·五cm)

赤褐色安山岩造로 頭部·頸部·右半身이 破缺되고 左半身만이 남아 있는 破佛로서 部落民에 依하여 寺址에서 發見되어 忠南道敎委에 保管되어 있다. 破缺로 因하여 頭髮·顔容·頸部 등의 彫刻 모습은 알 수 없고 殘存한 左半身은 精巧한 彫刻手法을 보이고 있다. 通肩衣에 衣紋이 優麗하니 法衣는 衣襟三條線이 胸前에서 U字形을 지었고 그 안으로는 袂衣의 매듭(結帶)이 보이고 肩部로 부터 안쪽으로 비껴 주름지다가 腕部에 外反하여 무릎을 덮었으며 膝部 밑에 扇形衣褶이 造出되었었으며 特히 胸部·肩部·膝部에는 華麗한 瓔珞飾이 있어 注目된다. 그리고 結跏趺座에 兩手를 臍前에 모아 寶珠를 들고 있다. 以上 記述한 衣紋·瓔珞飾 寶珠를 들은 手印 등으로 보아 菩薩像으로 推定되며 그 彫刻樣式은 麗末의 優作이라 하겠다.

寺址에는 이밖에 도 石造遺物殘片이 많다. 特히 石燈殘石과 石塔殘石 등은 注意를 끌고 있다.

① 石燈殘石은 伏蓮下臺石과 八角蓋石 등이 있어 既往에는 金堂前에 石燈이 세워져 있었음을 알 수 있겠다.

② 石塔殘石은 金堂址의 西北쪽에 高麗石塔樣式을 보이는 屋蓋石一個를 찾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殘片의 數値로 보아 規模가 작은 石塔으로 推測된다. 이것으로 普願寺에는 金堂 앞의 現存하는 五層石塔以外에 또 石塔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註

① 普願寺址에 가까운 곳에 있는 百濟石窟式東向伽藍인 泰安磨崖三尊佛, 雲山磨崖三尊佛이 있고 또 最近에 發掘調査된 扶餘金剛寺址가 亦是 典型的인 東向伽藍이며 新羅의 慶州石窟庵이 또한 典型的인 東向伽藍이다.

② 考古美術 第三卷 第四號拙稿 「保寧聖住寺址의 金堂址」參照

密陽 崇眞里 三層石塔

李 雲 成

密陽郡 三浪津邑 崇眞里 龍隱洞에 遺存하는 三層石塔 一基를 紹介한다. 密陽邑에서 洛東江의 順流를 따라 約六km 道路를 타고 南下하면 林川里라는 마을이 나서고 거기서 다시 東北方으로 二km의 奧地에 龍隱洞이 있으며 洞口를 훨씬 벗어난 山 밑 耕作地 가운데 石塔이 서 있다. 이곳은 ① 瑩源寺址와 ② 萬魚寺等 佛蹟을 거느린 ③ 慈氏山의 南麓으로서 西南向한 마을의 前方에는 洛東江岸의 ④ 광나루(廣灘)와 洞里於口에 넓은 ⑤ 王堂들을 바라볼 수 있다. 石塔附近 田畾이나 개천에는 많은 瓦片和 磁器破片을 散見할 수 있고 石塔도 原位置인 것으로 보아 이一帶가 寺址로 推定되는데 洞民(李愚益氏談 五三歲)의 말에 依하면 이곳을 ⑥ 加利寺址로 傳稱한다고 한다. 寺址로서의 特別한 遺構나 遺跡은 없으나 約七, 八年前까지만 해도 田畾을 深耕하면 完形에 가까운 磁器와 文樣있는 기와장 그리고 정맞은 石材가 多數 出土되어 洞里에 搬出하였다 하며 至今도 는 두렁 築臺 등에 注目되는 石材가 눈에 뜨인다.



石塔은 花崗石, 單基壇, 相輪部는 없 이 있고 三層 屋蓋石이 地盤위에 落下되어 後人들에 依하여 훼손된 흔적이 歷然한데 이 마을 父老 들에게 그 까닭을 물으니 日帝 中葉 密陽邑居住의 어느 日人